



통상 이슈브리프

2025.03.10

트럼프 2기 미중 통상분쟁 경과 및 우리 기업 영향

한아름 수석연구원 (02-6000-5850, ariel.han@kita.or.kr)

I 트럼프 2기 대중국 관세조치 및 영향

- 미국은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총 20%의 추가관세 부과
- 캐나다·멕시코에 대해서는 관세를 두 차례 유예한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유예 없이 각각 10%의 추가관세 조치 시행('25.2.4~'25.3.4.)
 - 마약 밀반입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하여 1977년 국가비상경제수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을 근거로 관세 부과

(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국 통상조치 경과

| 일자 | 내용 |
|-----------|---|
| '25.1.20. | – ‘미국 우선 통상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 각서를 통해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여부 검토 및 추가관세 등 권고안 마련을 USTR에 지시 |
| '25.2.1. | –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EO 14195) 서명 |
| '25.2.4. | – 같은 날 관세를 예고했던 캐나다·멕시코에 대해서는 양국 간 합의에 따라 관세를 30일간 유예했으나 중국의 경우 유예 없이 시행 |
| '25.2.5. | – 당초 미소기준(de minimis)을 활용한 소액(\$800 이하) 무세통관 적용을 금지했으나 이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행정명령(EO 14200) 서명 – 해당 수입품에 대한 관세 징수 시스템 구축 후 미소기준 적용 중단 예정 |
| '25.2.21. | – ‘미국 우선 투자정책(America First Investment Policy)’ 각서를 통해 중국에 대한 인바운드·아웃바운드 투자제한 강화 및 동맹국 기업의 중국 협력 제한 요건 도입 등을 행정부에 지시 |
| '25.3.4. | – 기존 대중국 관세 부과 행정명령(EO 14195)의 관세율을 ‘10%’에서 ‘20%’로 수정 |

□ 동 관세조치로 인해 일부 대중국 중간재 수출기업이나 중국에서 부품·소재 등을 공급받는 대미 투자 기업에 영향 불가피

○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로 미국의 대중국 평균 실효관세율은 기존 약 11%¹⁾에서 약 31%로 상승

○ 미국의 대중국 수입 비중이 '17년 21.6%에서 '24년 13.4%로 감소해 트럼프 1기 대비 영향은 제한적

– 美 대중국 수입 중 301조·232조·201조 관세 적용 비중은 '19.9월 기준 66.4%²⁾(금액 기준)

○ 다만 미국의 대중국 수입에서 46.9%를 차지하는 기계·전자류 제품은 추가관세의 영향이 클 전망

– 품목별 비중은 통신기기(11.5%), PC(8.4%), 배터리(3.9%), 완구(3.1%), 자동차 부품(2.2%) 순³⁾

○ 중국 내 중간재 수요 감소로 인해 한국의 대중국 전기·전자 중간재 수출도 간접적 피해가 예상되며, 중국산 자동차 부품, 배터리 소재 등을 수입하는 대미 투자 기업도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 예상

II 중국의 대응조치 내용 및 영향

□ 미국의 대중국 추가관세 발효 직후 중국은 보복관세, 기업 제재 등 다각적 대응조치를 발표

○ 중국이 에너지, 농산물 등 일부 품목에 한정해 관세를 부과한 것은 트럼프 1기 미국의 관세조치에 동일한 규모로 보복관세를 부과한 사례보다 대응 수위를 낮춘 것

– 트럼프 1기 미중 통상분쟁 이후 기술 자립 및 수입 다변화 노력을 통해 대미 의존도를 축소해 품목을 선별

– 1차 관세 대상품목 중 자동차, 농기계는 중국이 '중국제조 2025'를 통해 자립화에 주력했던 품목이며, LNG, 석탄, 원유의 경우 러시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일대일로 협력국과의 인프라 구축 및 에너지 장기계약으로 수입선 다변화⁴⁾

(표) 중국 1차 보복조치 주요 내용

| 조치 | 시행일 | 상세 내용 |
|-------|-----------|---|
| 보복관세 | '24.2.10. | –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 (15% 추가관세)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 (10% 추가관세) 원유, 농기계, 대배기량 자동차, 픽업트럭 |
| 수출통제 | '24.2.4. | –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에 대한 수출통제 즉시 시행 |
| 기업 제재 | '24.2.4. | –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 개시 – 일루미나(유전자 공학), PVH(패션)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 등재를 통한 중국 내 거래 및 투자 제한 |

자료 : 저자 작성

1) Hannah Miao(2024.12.3.), 'Breaking Down Trump's Tariffs on China and the World, in Charts,' The Wall Street Journal.

2) Chad P. Bown(2023.4.6.), "US-China Trade War Tariffs: An Up-to-Date Chart," PIIE.. 미국의 '17년 대중국 수입을 기준으로 집계

3) HS 8517, 8471, 8507, 9503, 8708

4) Jacob Gunter(2025.2.13.), "China is better positioned now for US trade war despite economic headwinds," MERICS.

□ 2차 대응조치에서는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발표하여 정치·경제적 압박 수위를 높임

○ 美 주요 농산물 생산지인 아이오와 등 중서부 지역은 대표적 공화당 지지 기반으로, 이미 해당 지역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보복관세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⁵⁾

(표) 중국 2차 보복조치 주요 내용

| 조치 | 시행일 | 상세 내용 |
|-------|-----------|--|
| 보복관세 | ‘25.3.10. | － (15% 추가관세) 닭고기, 밀, 옥수수, 면화 총 29개 품목 － (10% 추가관세) 수수, 대두, 돼지고기, 쇠고기, 과일, 채소, 유제품 총 711개 품목 |
| 기업 제재 | ‘25.3.4. | － (수출통제) 수출통제 목록에 15개사 신규 등재. 해당 기업 대상 이중용도 품목 수출 전면 금지 － (투자·거래 금지) 10개사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 등재 |
| 위생검역 | ‘25.3.4. | － 중국 해관총서, 위생검역조치(SPS) 근거로 미국산 목재, 대두 수입 잠정 중단 |
| 수입규제 | ‘25.3.4. | － 중국 상무부, 미국산 광섬유에 대해 첫 우회덤핑조사 개시 － 현재 중국은 미국산 광섬유에 대해 33.3~78.2%의 반덤핑 관세 부과 |

자료 : 저자 작성

- 관세 부과 740개 품목에 대한 중국의 대미 수입액은 ‘24년 기준 223억 달러로 대미 총수입의 13.6%, 해당 품목 對세계 수입의 16.0%를 차지
- 관세 대상품목에 대한 미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는 19.8%에 달해 관세 부과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
- 관세 대상품목에 대한 중국의 대미 수입은 ‘17년 대비 ‘24년 256% 증가했으나 브라질(대두, 수수), 호주(면화) 아르헨티나(옥수수, 밀) 등으로의 다변화를 통해 동기간 대미 수입 의존도 2.3%p 축소

(표) 중국 추가관세 대상품목 美-中 교역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 품목 | 관세율 | 中 대미 수입액 | | 中 대미 수입 비중 | | | 美 대중국 수출 비중 | | |
|-----------------|-----|----------|--------|------------|---------|------|-------------|---------|------|
| | | ‘17년 | ‘24년 | ‘17년(a) | ‘24년(b) | b-a | ‘17년(c) | ‘24년(d) | d-c |
| 합계 | | 6,265 | 22,313 | 18.3 | 16.0 | -2.3 | 18.4 | 19.8 | +1.4 |
| 닭고기, 밀, 옥수수, 면화 | 15% | 1,531 | 3,434 | 31.3 | 21.8 | -9.5 | 5.8 | 9.4 | +4.6 |
| 수수, 대두, 돼지고기 등 | 10% | 6,265 | 18,879 | 18.3 | 15.3 | -3.0 | 22.9 | 23.5 | +0.6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중국 관세조치 대상품목은 HS8단위 코드를 기준으로 하나, 미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HS 6단위 기준으로 집계

□ 텅스텐 등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의 영향은 제한적이나, 가격 인상, 수입 지연 등 공급망 차질 우려

- 미국 등 특정 국가를 겨냥한 전면적 수출 금지는 아니며, 해당 광물에 대한 미국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도 낮아 영향은 제한적
- － 미국은 텅스텐에 대한 301조 관세를 25%로 인상(‘25.1.1.)하는 등 선제적으로 공급망 취약도를 줄이고자 함

5) Daniel Desrochers and Grace Yarrow(2025.3.4.), “I’m concerned”: Ag-state Republicans start to sound alarm on Trump tariffs,” Politico Pro.

- 한국의 경우 일부 광물의 생산과 대미 수출 물량이 적지 않아, 향후 미국 내 중국산 대체수요 증가에 따른 시장 확대 가능성 검토할 필요
- 인듐은 한국이 글로벌 생산량 2위 국가로 미국의 최대 수입국⁶⁾이며, 텅스텐은 올해부터 생산물량의 45%가 장기구매계약을 통해 미국에 공급될 예정⁷⁾

(표) 수출통제 대상 광물 생산 및 美·韓 대중국 의존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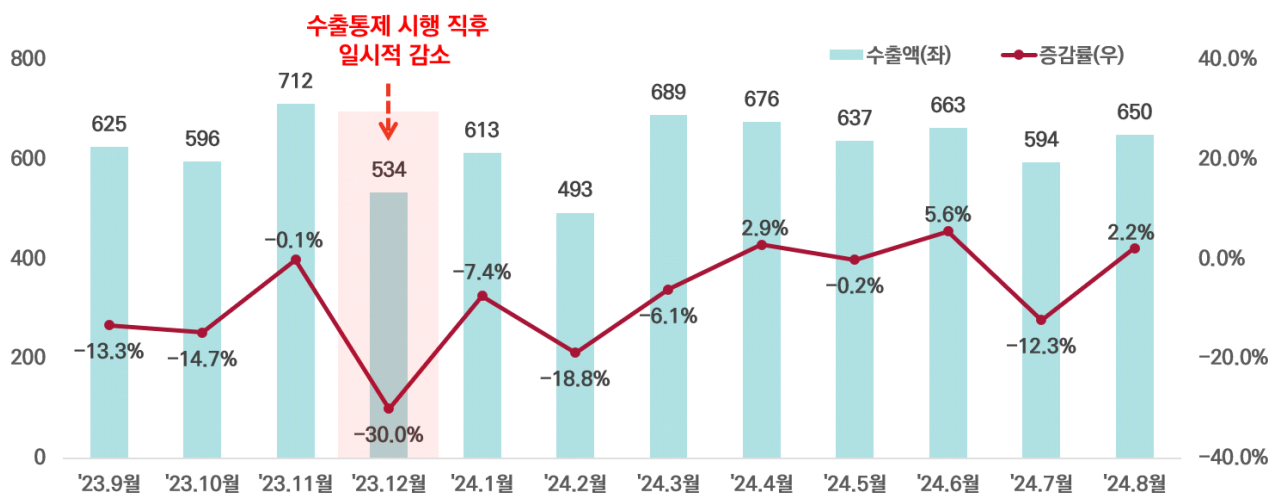
| 대상 광물 | 주요 사용처 | 중국 생산 점유율 | 美 대중국 수입 의존도 | 국내 생산 | | 대체 수입처 |
|-------|---------------|--------------|-----------------|----------|------------|----------------|
| | | | | 생산 여부 | 글로벌 점유율 | |
| 텅스텐 | 반도체, 방위, 항공우주 | 83% | 27% | 예정 | - | 베트남, 볼리비아 등 |
| 몰리브덴 | 태양광 패널, 풍력터빈 | 42% | 10% | O | 0.1% | 페루, 칠레, 미국 등 |
| 인듐 | 반도체, 통신광섬유 | 70% | 30% | O | 17% | 일본, 캐나다 등 |
| 비스무트 | 화장품, 의약품 | 81% | 36% | O | 6% | 라오스, 일본 등 |
| 텔루륨 | 태양광 패널 | 77% | 4% | O | - | 일본, 스웨덴, 캐나다 등 |

자료 : USGS, 한국무역협회

- 수출통제 시행 직후 일시적으로 중국의 수출량이 감소할 수 있으나 단기간 내에 이전 수준으로 회복 전망
- 다만 수출허가 절차에 따른 수입 지연, 재고 비축 수요 증가로 인한 가격 급등 등 수급 변화에 유의할 필요
- 안티모니의 경우 비(非)중국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격이 '24년 중 약 250% 상승⁸⁾

(그림) 중국 흑연 수출통제 직후 중국의 수출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전년동월비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중국 수출통제 대상품목의 HS 8단위 코드⁹⁾ 기준, 실제 수출통제는 10단위 기준으로 현 수치는 과대 계상되었을 수 있음

6) U.S. Geological Survey(2025),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25," U.S. Geological Survey.

7) Lewis Black(2025.1.19.), "Almonty Announces Intention to Relocate to the United States," Almonty Industries.

8) Anjana Anil and Ashitha Shivaprasad(2025.1.6.), "China's export ban to push antimony prices to new highs," Reuters.

9) 38011000, 38019090, 68151900, 25041010, 25041091, 38019010, 38019090, 38249999, 68151900

III 전망 및 시사점

- 중국은 펜타닐,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및 대화 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양국간 통상마찰은 장기화될 가능성
 - 중국은 보복조치와 동시에 '펜타닐류 물질 관리·통제'에 관한 백서('25.3.4.)를 발표하여 관련 범죄 단속 강화, 전구체에 대한 엄격한 통제 시행 등 대응 노력 강조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석유화학, 철강 등 전통산업의 구조조정 실시를 천명('25.3.5.)
 - 중국은 협상카드 중 하나로 대규모 대미 투자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¹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인·아웃바운드 투자제한을 강화하고 동맹국 기업에 대해서도 중국과의 협력 제한 요건을 제시하여 양국간 합의 가능성을 낮춤¹¹⁾
 - 美 무역대표부는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여부 검토 및 추가관세 등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25.4.1.)인 만큼 양국이 본격 협상에 나서기까지는 일정 기간 관세 부과 갈등이 이어질 전망
- 우리 기업은 중국 기업의 우회수출에 연루될 가능성 및 중국의 수출통제 확대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 중국 내 생산기지를 두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생산 물량을 중국 내수시장 또는 아시아권 수출로 전환하는 등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와 피해에 대비할 필요
 - 대중국 관세 인상에 따라 중국 기업의 관세 우회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기업은 중국 제품의 우회수출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원산지 검증이 강화될 수 있어 협력사와의 공조를 통해 공급망 점검 및 원산지 입증자료 관리를 강화하고, CBP의 원산지 사전 판정 제도를 적극 활용해 대중국 관세조치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함
 - 중국은 수출통제 법제를 지속 정비하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있어 향후 미중 통상 마찰 확대로 핵심광물 수출통제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
 - 중국은 최근 수출통제법 하위 법규인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를 시행('24.12.1.)하여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 관리 강화, ▲美 해외직접제품규칙(FDPR)과 유사한 중국산 통제품목·기술 활용 생산품 통제 ▲등록제→허가제 변경, ▲수출통제 품목 관리 일원화 등 규정 마련
 - 단기적으로는 민간 재고 및 공공비축 확대, 장기적으로는 자체 공급망 구축 및 수입선 다변화 필요

10) Martin Chorzempa(2025.2.28.), "Trump investment order seeks to limit US-China flows, while attracting more from allies," PIIE.

11) The White House(2025.2.21.), "America First Investment Policy".